

2019년 4월 18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헬스케어 업종 급락으로 하락 전환 바이오 업종 ETF -3.89% Vs.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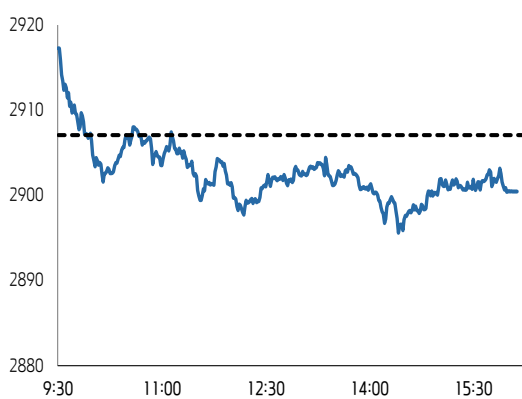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①퀄컴-애플 ②실적 발표 ③미, 중 경제지표 ④ 제약 바이오업종

미 증시는 중국과 미국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 출발. 더불어 일부 기업들의 실적 개선도 긍정적인 영향. 그러나 제약 바이오 업종의 급락이 이어지자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 한편,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경기가 다소 미약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해 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음(다우 -0.01%, 나스닥 -0.05%, S&P500 -0.23%, 러셀 2000 -0.96%)

미 증시는 ①퀄컴-애플 소송 합의 ②실적 발표 ③미, 중 경제지표 개선 ④미-중 무역협상 일정 ⑤ 제약 바이오업종 급락 등의 영향을 받아 변화. 전일 퀄컴과 애플이 특허 소송 철회에 합의. 이 영향으로 애플이 5G 스마트폰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련 기업들의 상승이 이어감. 더불어 모건스탠리(+2.64%), 펍시코(+3.76%)를 비롯한 CSX(+4.02%) 등 일부 기업들의 실적 개선도 관련 업종들의 동반 상승을 이끔. 특히 1 분기 S&P500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3%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 84.6%의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등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

더불어 중국의 실물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완화된 점, 4/29~5/6 일 주간에 라이트 하이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으로 넘어가 미-중 무역협상을 지속한다는 소식도 긍정적. 그러나, 제약, 바이오 업종이 전일에 이어 급락세를 보이자 지수는 하락 전환. 의회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약가인하' 정책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매물 출회. 특히 미 법무부가 불법적인 진통제 처방을 이유로 60 명의 의료진을 기소한다고 발표한 이후 관련 이슈 부각. 바이오 ETF(IBB)는 3.89% 급락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코스피	2,245.89	-0.12	홍콩항셱	30,124.68	-0.02
코스닥	766.89	+0.24	영국	7,471.32	+0.02
DOW	26,449.54	-0.01	독일	12,153.07	+0.43
NASDAQ	7,996.08	-0.05	프랑스	5,563.09	+0.62
S&P 500	2,900.45	-0.23	스페인	9,549.80	+0.55
상하이종합	3,263.12	+0.29	그리스	773.44	-0.30
일본	22,277.97	+0.25	이탈리아	22,000.88	+0.3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바이오 업종 ETF -3.89% 급락

퀄컴(+12.25%)은 전일 애플(+1.95%)과의 특허 소송 합의 소식으로 이틀 연속 급등 했다. 5G칩에 대한 가장 큰 수요처가 생긴데 힘입은 결과다. 특히 JP모건을 비롯한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이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점도 긍정적이었다. 한편 소송 합의는 애플의 5G스마트폰 시장 진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애플의 상승도 이어졌다. 인텔(+3.26%)은 퀄컴과 애플의 소송 합의 직후에는 하락하기도 했으나, 5G칩 시장에서 빠질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급등 했다.

모건스탠리(+2.64%)는 자산관리 및 채권거래 부문을 기반으로 수익이 개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골드만삭스(+3.00%), JP모건(+2.88%) 등 자산관리 강자들은 동반 상승 했다. 그러나 웰스 파고(-0.21%), BOA(+0.50%) 등은 보험권 등락에 그쳤다. 음료업체 펩시코(+3.76%), 철도운송회사 CSX(+4.02%)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했다.뱅크오브 뉴욕멜론(-9.52%), IBM(-4.15%)과 넷플릭스(-1.31%)는 부진한 실적 발표 또는 회원수 증가세 둔화 가능성 제기로 하락 했다. 제약 바이오 및 헬스케어 업종은 약가 인하와 관련된 의회 및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해결 과제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급락을 이어갔다(바이오젠 -0.67%, 암젠 -2.97%, 에브비 -2.78%, 엘러간 -3.70%)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37%	대형 가치주 ETF(IVE)	-0.05%
에너지섹터 ETF(OIH)	-0.27%	중형 가치주 ETF(IWS)	-0.58%
소매업체 ETF(XRT)	+0.11%	소형 가치주 ETF(IWN)	-0.37%
금융섹터 ETF(XLF)	+0.26%	대형 성장주 ETF(VUG)	-0.29%
기술섹터 ETF(XLK)	+0.56%	중형 성장주 ETF(IWP)	-0.93%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42%	소형 성장주 ETF(IWO)	-1.50%
인터넷업체 ETF(FDN)	-0.81%	배당주 ETF(DVY)	+0.04%
리츠업체 ETF(XLRE)	-1.04%	신흥국 고배당 ETF(DEM)	+0.22%
주택건설업체 ETF(XHB)	+0.12%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05%
바이오섹터 ETF(IBB)	-3.89%	미국 국채 ETF(IEF)	+0.02%
헬스케어 ETF(XLV)	-2.88%	하이일드 ETF(JNK)	-0.22%
곡물 ETF(DBA)	-0.36%	물가연동채 ETF(TIP)	-0.02%
반도체 ETF(SMH)	+1.48%	Long/short ETF(BTAL)	+0.2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99.51	-0.09%	+0.20%	+1.01%
소재	361.59	-0.61%	+0.65%	+4.14%
산업재	652.43	+0.15%	+2.40%	+4.69%
경기소비재	944.47	+0.19%	+1.56%	+5.93%
필수소비재	585.56	+0.36%	+1.39%	+3.49%
헬스케어	992.27	-2.89%	-6.60%	-6.83%
금융	454.76	+0.18%	+3.44%	+4.69%
IT	1,361.53	+0.58%	+1.61%	+5.88%
커뮤니케이션	165.74	+0.15%	+1.92%	+4.19%
유틸리티	290.59	-0.21%	-0.56%	-0.33%
부동산	218.22	-0.99%	-3.55%	-0.4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종목 장세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 는 0.22% MSCI 신흥 지수 ETF 는 0.29%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 순매수(+850 계약) 했으나 0.05pt 하락한 291.5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1.2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여전히 개별 업종별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종목들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종목 장세'가 이어졌다. 특히 제약, 바이오 업종 부진 등으로 러셀 2000 지수가 0.96% 하락하는 등 중소형 종목들이 부진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이다. 더불어 EU 가 미국 정부의 보잉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200 억 달러에 달하는 보복 관세 부과 리스트를 발표한 점도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이 높이는 이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 경제지표가 개선되는데 이어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 제조업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우호적이라고 평가한 점은 긍정적이다. 이는 향후 한국 수출 증가 기대감을 높이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4/29~5/6 일 주간에 중국에 들어가 미-중 무역협상을 이어간다는 보도가 나온 점도 긍정적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호악재가 혼재된 가운데 개별 종목 이슈 변화에 따른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무역 적자 감소

2 월 미국 수출은 전월 대비 1.1% 증가해 지난해 9 월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수입은 0.2% 증가에 그쳐 무역적자는 전월 대비 3.4% 감소한 493.8 억 달러로 발표되었다. 특히 대 중국 무역적자가 전월 대비 9.3% 감소한 301.2 억 달러에 그쳤다.

2 월 미국 도매재고가 전월 대비 0.2% 증가 했다. 전년 대비로는 6.9% 증가 했다. 도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로도 2.15 증가 했다. 한편, 판매대 재고율은 1.35 로 전년(1.29) 보다 증가 했다.

2 월 이탈리아 건설 생산은 3.4% 증가해 20174 년 2 월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건설 생산량도 3 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3 개월 동안 2.4% 증가 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소폭 하락 마감

국제유가는 EIA 가 지난주 원유재고 140 만 배럴 감소, 가솔린 재고 117 만 배럴, 정제유 재고 36 만 배럴 감소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락 했다. 최근 상승에 따른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된 점이 부담이었다. 더불어 EU 가 미국에 대해 200 억 달러에 달하는 보복 관세 제품 리스트를 발표하는 등 미-EU 간 무역협상 부담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중국 경제지표 개선 영향으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완화되자 하락 했다. 엔화 또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며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높였다. 한편, 유로화는 유로존 무역수지가 예상보다 흑자폭이 증가하고, 이탈리아 건설 생산과 무역수지 개선에 힘입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다만, 미-EU 무역분쟁 우려가 높아진 점은 유로화 강세를 제한 했다.

국채금리는 중국 경제지표 및 미국 무역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하는 등 변화가 제한되었다.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 경기에 대해 다소 미약한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 했으나, 제조업 활동은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자 변화가 제한되었다. 한편, EU 는 미국의 보잉에 대한 보조금으로 EU 기업이 피해를 봤다며 200 억 달러에 달하는 보복관세 부과 대상 리스트를 발표한 점은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약세 불구 중국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로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미-EU 무역 분쟁 우려 불구 중국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525, 철근은 0.98%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3.76	-0.45	-1.32	Dollar Index	97.025	-0.02	+0.08
브렌트유	71.62	-0.14	-0.15	EUR/USD	1.1299	+0.16	+0.22
금	1,276.80	-0.03	-2.82	USD/JPY	112.09	+0.08	+0.97
은	14.939	+0.16	-2.00	GBP/USD	1.3038	-0.08	-0.40
알루미늄	1,850.00	-0.30	-0.75	USD/CHF	1.0108	+0.28	+0.81
전기동	6,556.00	+0.94	+1.42	AUD/USD	0.7173	-0.03	+0.03
아연	2,819.50	+0.34	-1.86	USD/CAD	1.3339	-0.08	+0.15
옥수수	367.00	-0.20	-1.01	USD/BRL	3.9375	+0.85	+2.95
밀	450.25	+0.39	-2.44	USD/CNH	6.6779	-0.52	-0.61
대두	892.50	-1.03	-2.49	USD/KRW	1134.80	-0.08	-0.33
커피	89.65	-3.55	-7.34	USD/KRW NDF1M	1131.21	-0.48	-0.50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590	0.00	+12.55	스페인	1.102	+1.90	+6.20
한국	1.942	+1.00	+7.50	포르투갈	1.205	+1.30	+4.20
일본	-0.006	+1.60	+4.70	그리스	3.309	+1.30	-10.10
독일	0.080	+1.40	+10.60	이탈리아	2.611	+1.90	+20.20